

# 비오면 파전에 막걸리… 레인 마케팅 ‘유혹’

유통업계 일찍 찾아온 장마에

막걸리 2병이상 구입땐 15%↓

부침개 재료도 할인 혜택

엄마·아이 커플 비웃 할인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는 ‘레인 마케팅’에 바쁘다. 일찍 찾아온 장마에 예년보다 빠르게 우산·레인코트 같은 필수용품에 대한 특가전을 준비했고 장마 관련 행사도 당겨 열고 있다.

이마트는 20일 전국 동시에 ‘막걸리 및 부침개 재료 모음전’을 열었다. 평소 7월에 준비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장마가 2주가량 빨리와 시기로 당겼다.

부침개 재료 10개 중 2개 이상은 동시에 구매하면 20% 할인 혜택을 주고 전국 유명 산지 막걸리 10종도 2병 이상 구입하면 15% 할인을 적용한다.

롯데마트 역시 부침개 재료를 진열대에 1순위로 배치했다. 26일까지 ‘백설 자연재료 부침가루(1kg)’는 정상가보다 21% 할인한 2200원에 판매한다. ‘백설 식용유(1700ml)’는 정상가에서 300원을 할인한 6300원에 판매하고 500ml 제품을 추가 증정한다.

홈플러스도 우산과 우의 등을 모아 파는 ‘장마용품 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풀로렌스&프레드’의 컬라ップ 우산은 보완해 1만1000~1만7000원에 판매한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맞춰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형 우의도 시중가보다 약 60% 저렴하게 판매한다. 매출 신장률이 가장 높았던 제습기 일부 품목은 10~3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소셜커머스에서도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옥션은 내달 1일까지 ‘상쾌한 뿐송이네 기획전’을 열고 여름 침구, 제습제 등 생활용품을 반값에 판매한다.

G마켓은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 타이어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장착서비스’를

모여라!’라는 상설관에서 타이어를 사면 무료로 장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다음달 7일까지 우산, 제습용품, 레인부츠, 자동차 관리용품 등 장마철 필수용품을 최대 84% 할인 판매하는 ‘장마비 기획전’을 실시한다.

지역 백화점도 이미 장마철 마케팅의 시동을 걸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층 잡화매장에 2만 5000원부터 5만5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패션우산을 준비하는 등 장마 용품 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장마철 관련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1층 행사장에서는 ‘우양산 특집전+레인부츠·코트 특집

전’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8층 가전 행사장에서는 장마철에 늙은 집안의 습기 및 공기정화에 탁월한 제품인 제습기 특집전과 편안하고 시원한 잠자리 위해 대나무 카페트·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무덥고 길어진 장마에 레인슈즈 및 레인코트, 습기 제거 제품 등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한편 비가 내리면 펼쳐지는 마케팅 등으로 고객들의 쇼핑 재미까지 더해 여름 비수기로 통하는 장마철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올 여름 최악 전력난, 절전형 상품 뜬다

형광등 대신 ‘LED전구’, 청소기 대신 ‘빗자루’ 불티

냉방 효과 뛰어난 일명 ‘빡빡이’ ‘에어캡’도 인기

울여를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절전형 상품이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위와 장마가 본격 시작된 이달 들어 대형마트에서 전기를 쓰지 않거나 전력 소모가 적은 절전형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에선 전력난 속에 일명 ‘빡빡이’로 불리는 에어캡이 일약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뤘다.

보통 유리 등을 포장하는데 쓰이는 에어캡은 판매량이 거의 없다 전력난과 혹한이 함께 몰아닥친 지난 겨울 단열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달 이마트에서 에어캡의 일 평균 판매량은 지난달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에어캡은 지난달엔 1천개가 팔렸는데 무더위가 닥치면서 판매가 급증, 이달(1~19일)에만 1

만개 넘게 팔렸다.

에어캡은 여름의 경우 실내 기온이 쉽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냉방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효과가 있다. 유리에 에어캡을 붙이면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약 3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윤여택 이마트 조명공구 담당 바이어는 “이달 들어 절전·단열제품 수요가 늘어 에어캡이 일 평균 주중 500개, 주말 1000개가 팔렸다”며 “전력경보 발령 등으로 절전에 대한 인식이 가정으로도 확산됐다”고 말했다.

절전형 상품인 LED 전구 판매도 부쩍 늘었다.

형광등보다 전력소모가 약 30% 적은 LED전구가 이마트에서 두배(110.9%) 넘게 팔렸다. 전구류 중 LED전구 판매 비중은 작년 19.5%에서 올해 31%로 뛰었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LED전구 매출은 50.5% 증가한 반면 형광등 매출은 14.4% 감소했다.

전동 대신 수동 제품을 사용하는 ‘아날로그’형 소비도 두드러진다.

이마트의 6월 부채 판매량은 1800여개로, 작년(930개)보다 두 배(93.5%) 가까이 늘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빗자루·쓰레받기와 밀대걸레 매출이 전년보다 10.2%, 14.2% 증가했다. 반면 진공 청소기 매출은 7.2% 줄어들었다.

통풍방식 판매도 작년보다 4배 늘어났으며 대나무자리(47.3%)와 쿨매트(115.6%), 부채(50.7%) 등도 판매가 급증했다. /연합뉴스

## 한국인 4명 중 1명 휴대전화 1년내 교체

과도한 보조금 탓…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아

###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T경제경영연구소의 ‘이동통신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입자 중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고 단말기 교체하는 사람은 연간 15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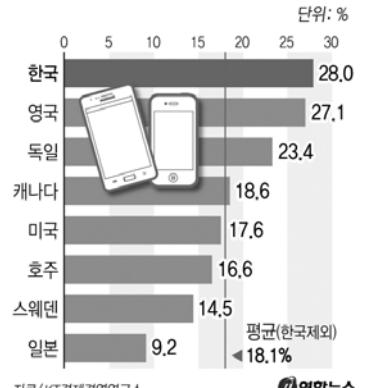
연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수는 2천500만대 수준인데, 이 중 60%(1천 500만대)가 1년 이내에 단말기 교체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메릴린치증권의 글로벌 월스메니지먼트(GWM)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한국의 ‘1년내 휴대전화 교체율’은 한국과 휴대전화 보급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9.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은 단말기 교체가 많은 만큼 한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MNP)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 국가별 1년 이내 휴대전화 교체율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연합뉴스

웨덴 14.5%, 캐나다 18.6%, 독일 23.

4%, 영국 27.1% 등이었다. 이를 국가와 일본 등 비교 대상인 7개국의 평균은 18.1%로 한국보다 9.9%p 낮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한국의 단말기 교체가 빠른 것은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마케팅비가 단말기 가격 구조를 왜곡해서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단말기 교체가 많은 만큼 한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MNP)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 대형마트 푸드코트도 자율 영양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로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식단의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을 표시한다.

푸드코트 영양표시에는 갤러리아·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이미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연말까지 동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커피전문점(2008년 7월), 고속도로 휴게소(2010.3), 패밀리레스토랑(2010.12), 놀이동산 음식점(2012.5), 대형 영화관(2013.5) 등이 자율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20일 헛복분자가 ‘2013 국제스포츠외교재단 포럼’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외교재단(이사장 문대성 IOC 위원)의 주최로 21~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이번 포럼은 IOC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다.

이번에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하이트진로의 헛복분자는 100% 국내산 헛복분자만 사용해 신선하고 깊은맛이 특징이다.



##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 건물 2974 ㎡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여수시 율촌면 가스총전소

대지 2610 ㎡ 건물 2974 ㎡

감정가격 10억1천만원

채권매각 6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 건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ul style="list-style-type